

# 부산 스포츠 뉴스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32**  
2022. 11

## 부산체육인

낚시, 그 짜릿한 매력 속으로  
부산광역시낚시협회 김선관 회장

## 영광의 주역

대한민국 레슬링의 비상(飛上)을 이끌다  
부산광역시체육지도자협회 오정룡 회장

## 부산스포츠 히어로

부산 검도, 59년 만에 정상에 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

## 구·군체육회를 가다

행복한 체육, 구민과 함께!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 BSC 뉴스

-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배구대회 개최
-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대한체육회  
간담회 개최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부산체육인

낙시, 그 짜릿한 매력 속으로

- 부산광역시낙시협회 김선관 회장



## 영광의 주역

대한민국 레슬링의 비상(飛上)을 이끌다

- 부산광역시체육지도자협회 오정룡 회장



## 부산스포츠 히어로

부산 검도, 59년 만에 정상에 서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



## 구·군체육회를 가다

행복한 체육, 구민과 함께!

-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 BSC 뉴스

-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배구대회 개최

-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대한체육회 간담회 개최



# 낙시, 그 짜릿한 매력 속으로

부산광역시낙시협회

김선관 회장

낙시 원로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낙시인들의 추진력이 융화되어  
낙시협회를 이끌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혜의 어장으로 불리는 울릉도에서 나고 자란 김선관 회장.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즐겨하던 놀이가 있었는데, 바로 ‘낙시’다.

“주변 환경 때문에 제게 바다는 놀이터였고, 낙시는 놀잇감이었습니다. 당시 동네에 있는 대나무 하나를 톱 꺾어서 낙시대로 사용하곤 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울릉도를 떠나 부산으로 오게 되었지만, 김선관 회장과 낙시와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 낙시 제품을 수출하는 곳이었던 것. 현재도 낙시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선관 회장. 그를 사로잡은 낙시의 매력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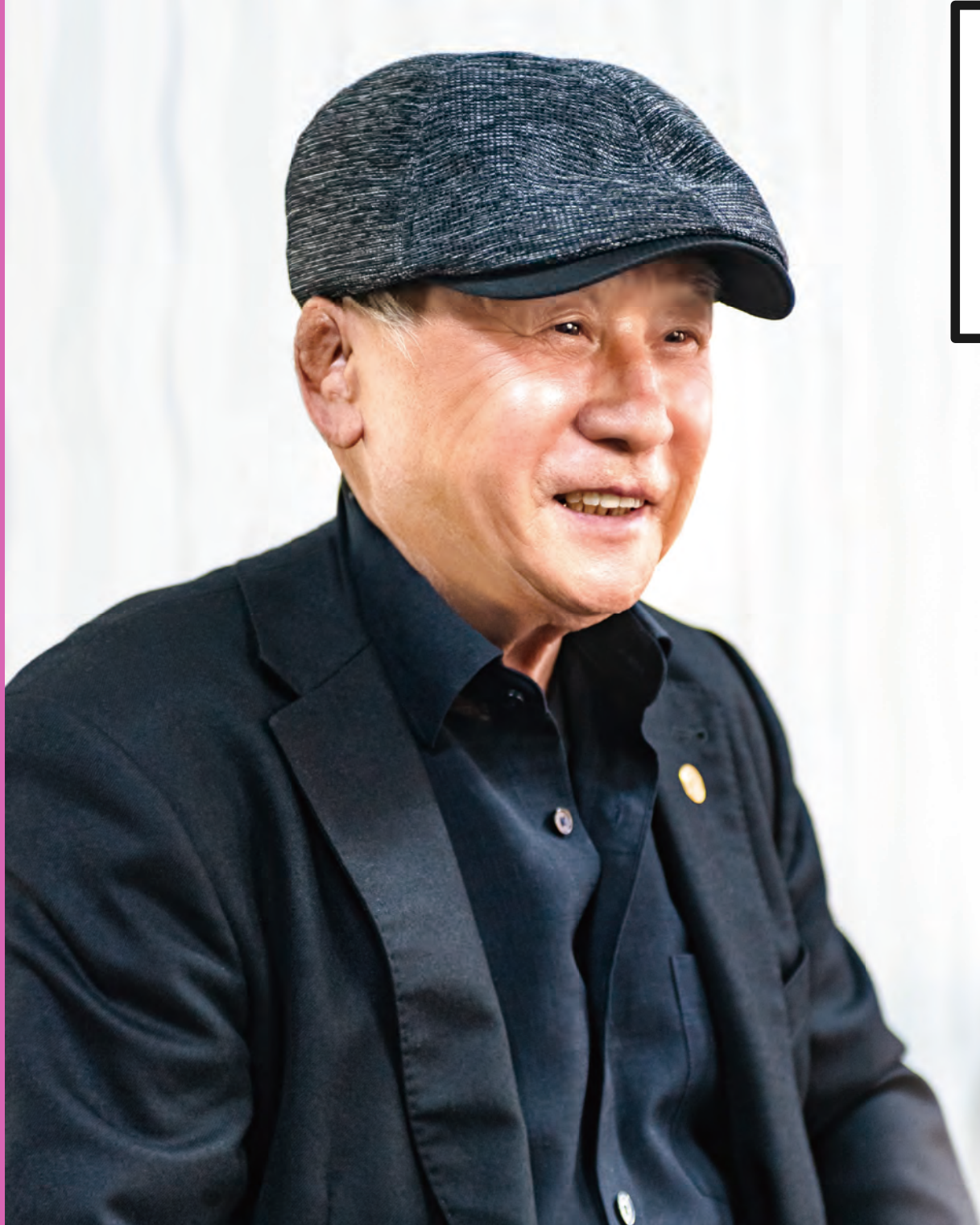
“손맛이죠. 낚시줄과 바늘을 드리웠을 때, 고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마치 고기와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대결에서 승리하며 고기를 낚아챌 때의 손맛은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김선관 회장이 부산광역시낚시협회와 인연이 닿은 건 2019년 이사직을 맡으면서 부터였는데, 그러던 중 갑작스레 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일이 생겼다. 부산낚시를 대표하는 낚시협회가 좌초되는 건 낚시인과 낚시업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고심 끝에 협회원들을 믿고 그는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부산광역시낚시협회를 운영하면서 김 회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신·구세대의 조화’였다.

“낚시 원로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낚시인들의 추진력이 융화되어 낚시협회를 이끌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구세대의 조화를 통해 부산광역시낚시협회는 낚시 저변 확대를 위한 도약을 내딛고자 합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낚시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문 낚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낚시로 유행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선관 회장. 그의 지론처럼, 앞으로 낚시 문화를 바꾸고 만들어 갈 부산광역시낚시협회의 힘찬 출조를 응원한다.





# 대한민국 레슬링의 비상(飛上)을 이끌다

부산광역시체육지도자협회

오정룡 회장

레슬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술을 쓰기  
때문에 모든 신체 부위를 단련해야 합니다.

훈련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훈련을  
따라가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오정룡 원로는 우리나라 레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선수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오정룡 원로 역시 양정모 선수보다 앞서 우리나라 레슬링계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1963년 3월에 레슬링을 시작해 그해 10월에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레슬링계에 화려하게 입문한 데 이어 3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정룡 원로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5개의 금메달을 땀을 뿐만 아니라 1967년 인도 뉴델리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름을 떨친 오정룡 원로는 1968년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비롯하여 ‘제5회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가 레슬링을 시작한 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한다.



“길을 걷다 우연히 레슬링 체육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체격이 작은 편이었는데, 또래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레슬링을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작한 레슬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 잠깐이지만 초등학교 때 배운 씨름이 레슬링 기술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자상한 스승님을 만난 덕분에 힘든 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올림픽대회에서 5위에 오르며 국제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레슬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술을 쓰기 때문에 모든 신체 부위를 단련해야 합니다. 훈련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훈련을 따라가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오정룡 원로는 ‘정신력’이 강하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를 하게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멋지게 그 일을 해냈다. 나아가 레슬링을 통해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의 행보가 레슬링의 정신력을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

## 부산 검도, 59년 만에 정상에 서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부산 선수단의 다양한 활약 중 단연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데, 바로 부산광역시체육회 남자검도실업팀이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무려 5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것. 이번 대회 중 특히 8강전 울산시청팀과의 경기는 그야말로 명경기로 꼽힌다. 울산은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홈그라운드였던 만큼 응원하러 온 관객도 상당히 많았다. 많은 울산 시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고, 대표전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김민규 선수가 짜릿하게 승기를 잡아내며 명승부를 만들어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은 우승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 전국체육대회 남녀동반 종합우승을 목표로 더욱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오직 부산 검도 발전을 위해 달려왔던 서준배 감독과, 검도의 간절함을 가진 선수들. 그들이 써 내려갈 또 하나의 멋진 드라마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부산스포츠 히어로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4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복한 체육, 구민과 함께!

체육으로 행복을 열어가는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는 지난 9월 3일(토)에 열렸던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였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구씨름협회를 향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은 물론, 미리 선수를 선발하여 유도체육관에서 1개월에 걸친 특별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금껏 노력한 땀의 결실을 보여주듯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코로나19가 풀리면서 동구체육회는 ‘구봉산고유제’ 및 ‘구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동구의 자연과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구는 예전부터 전문체육의 튼튼한 뿌리로서, 선수 육성이 활성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이 무궁무진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12월 동구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으로 한국 체육의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데 일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배구대회 개최



## 38개 클럽, 500여 명의 동호인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기획한 Beginner 대회는 미등록 동호인과 운동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

Beginner 배구대회는 지난 10월 3일(월) 기장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총 38개 클럽(남자 16개, 여자 22개), 501명의 동호인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치러졌다. 배구는 단체 종목으로 초보 동호인의 참여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경기인 9명 중 5명의 초보 동호인을 포함해 경기를 진행하였다.

본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Beginner 대회가 수준 높은 실력자만 참가하는 일반적인 대회 시스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어 미등록 동호인과 초보 동호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대한체육회 간담회 개최

###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16개 구·군체육회 참석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16개 구·군체육회는 지난 11월 3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가 개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체육회장 순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대한체육회장과 부산광역시체육회장, 16개 구·군체육회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방체육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방체육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기회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정책 주요 현안 설명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상황 ▲민선 1기 지방체육회 주요성과 ▲2023년 대한체육회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 등을 설명했고, 지방체육회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2년 12월 실시되는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구호 제창과 참석자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